

政策問題研究를 위한 調查設計

金 海 東*

.....<目 次>.....	
I. 調査設計의 意義	IV. 研究問題의 沿革的 考察
II. 調査設計의 性格과 目的	V. 概念를 만들기
III. 調査研究의 正當化	VI. 調査目標의 陳述

〈要 約〉

政策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調査方法을 많이 活用하는데, 이때 調査를 통하여 주어진 目的을 效果的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調査設計가 科學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調査設計란 어떠한 實際狀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狀況 속에서 어떠한 行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즉, 調査問題에 대한 計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調査設計의 科學性與否가 調査活動全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調査活動의 目的이나 內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調査活動自體가 恣意의이고 反復實驗될 수 있는 것이라면 調査結果는 信賴性이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點에서 調査設計는 調査研究의 自己統制의 機能을 提供해 주어 調査研究의 正當性을 提高시켜 준다.

이글은 이와 같은 理解下에서 調査設計의 性格, 調査研究의 正當化, 研究問題의 沿歷的 考察, 概念를 만들기, 調査目標의 陳述을 살펴 보았다.

創意性이 強調되는 藝術活動에 있어서도 그 活動이 創意의이고자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는 일정한 形式性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예를 들어 音樂曲을 作曲하는 이가 기본적인 樂曲法이나 和音階를 무시한 채 작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形式性이나 構造性을 創意性的前提의 要件 또는 基礎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關係는 調査活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形式性이나 構造가 없는 無定形的 調査活動은 그 有用性이 없을 뿐 아니라, 대개의 경우 失敗의 調査로 끝나는 것이다.

屬正性과 再生可能性이 強調되는 科學的 研究에 있어서는 이러한 틀 또는 形式性의 重要性을 再三 強調할 必要가 없다. 即 아무리 좋은 內容과 좋은 假說을 가지고 매혹적인 문제를 다룬 調査研究라 하여도, 여기서 다룬 틀이 다른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調查研究者에 의해 反復實驗될 수 없는 것이거나 전혀 자의적인 方法에 의한 것이나, 그러한 研究는 科學社會 뿐 아니라 그리한 研究를 한 그個人 자신에게도 전혀 貢獻을 할 수 없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調查研究의 틀을 마련하는 行爲는 다른 면에서 보았을 때 調查研究의 自己控制(self-control)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 즉 조사연구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制約點과 아울러 그 調查研究의 創意的이고 進取的인 면 모두를 밝혀줄 뿐 아니라, 調查研究의 全體的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청사진을 제공하는 일, 즉 과학적인 조사설계는 이론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考慮해야 할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기서는 일단『조사자가 설정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작적인 활동의 연속적인 단계』라고 간주하고, 그것이 실제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 調査設計의 意義

調查設計가 무엇인가에 대한 意見은 여러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대체로 조사문제에 대한 計劃(plan), 즉 어떠한 실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行動을 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過程이라고 보는데에는 그리 큰 差異¹⁾ 없는 듯 하다.¹⁾ 이러한 過程은豫期되는 狀況을 統制하고자 深思熟考된 一連의豫見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건축가가 집을 짓고자 할 때에 그 건축가는 그가 짓고자 하는 집에 대하여 필요한 事項들을 일일히 미리 생각하여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 건물은 몇坪짜리이며, 방은 몇개를 몇坪짜리로 어떻게 만들것이며, 어떤 材料를 使用할 것이며,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건축에 필요한 인원은 직종에 따라 몇명이 되어야 하는가 등을 실제 건축하기 전에 미리 考慮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이러한 청사진이 마련되었을 때 건축가는 자신이 어떠한 모습의 집을 짓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으며, 그러한 점검과정 속에서 실제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하여 자

1) 意見의 多樣性은 참고문헌을 비교할 것. 計劃理論의 代表적인 見解로는 Russell L. Ackoff, *The Design of Social Researc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pp.1-12.

신이 정말 짓고자 하는 집을 시공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건축가가 그 청사진을 보았을 때에는 이 건축가가 어떠한 집을 짓고자 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提言이나 助言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調査設計는 (1) 問題形成, (2) (실제적인 조사에 制約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最適化시킨 理想의 調査設計, (3) 실제적인 조사설계의 단계로 크게 나눌 수도 있고,²⁾ 政策的인 面에 重點을 두어서, (1) 政策的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목적의 정당화, (2) 정책문제의 역사적 고찰, (3) 정책문제를 연구조사하기 위한 개념틀 만들기, (4) 조사의 목적기술, (5) 연구할 대상집단의 고려 및 선정, (6) 수집할 자료의 기술, (7) 자료수집의 절차, (8) 자료분석법, (9) 조사의 실시절차 등으로 나눌 수도 있으며,³⁾ (1) 개념화, (2) 조사방법의 선정, (3) 조작화, (4) 대상집단의 선정과 표본추출, (5) 관찰 또는 경제적 증거의 수집, (6) 자료처리, (7) 分析 등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⁴⁾

이러한 다양한 分類가 가능한 것은 調査設計를 計劃으로 보느냐, 또는 構造(Structure)로 보느냐, 혹은 戰略(Strategy)으로 보느냐 하는 觀點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計劃은 調査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방안 또는 프로그램(Program)으로서 調査者가 假說의 構成 및 그의 操作化에서부터 최종적인 자료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윤곽적인 청사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構造는 보다 限定의인 것으로 關係變數의 操作에 관한 윤곽 또는 시행방침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變數를 擇하고 이를 變數와의 관계 및 그들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윤곽을 잡으려고 하면 調査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構造의in 施行方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戰略은 構造보다 더욱 限定의인 것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용되는 方法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즉 調査目的을 어떻게 達成할 것인가, 조사수행 중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을 事前에 결정하는 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調査設計의 性格과 目的을 간단히 알아 본 다음, 調査目的의 正當性, 問題에 대한 歷史的 考察, 概念틀 만들기, 調査目的의 記述 등에 대하여

2) Loc. cit.

3) Robert R. Mayer and Ernest Greenwood, *The Design of Social Policy Resear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0), pp. 69-76.

4) Earl R. Babbi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Second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79), pp. 106-110.

考査하고자 한다. 여기서 附記할 것은 이들을 說明할 때에 政策問題의 調查活動에 力點을 두었다는 것이다.

Ⅱ. 調查設計의 性格과 目的

調査設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特性을 갖는다.

첫째, 調査設計는 完全한 解答을 提供하도록 設計되지는 않는다. 즉 조사설계는 조사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추구하도록 짜임을 만드는 데에 그 主要目的이 있으나, 關係變數의 統制에 대한 限界가 있기 때문에 完全한 解答을 주는데 있어서 늘 不滿이 남을 수 밖에 없게 된다. Ackoff는 研究調查의 成敗나 效果生은 이러한 關係變數의 統制를 일만나 잘할 수 있는가, 또는 統制할 수 없는 變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主張한다.⁵⁾ 따라서 어느 調査設計이든지 일정한 수준이상으로만 信賴度와 妥當度의 要求를 充足하게 된다.

둘째로, 調査設計에 나타난 假說을 實제에 있어서 明白하게 說明하기 어려우므로 調査者는 많은 경우에 일련의 그럴듯한 對立假說을 구성하여 檢증하기도 한다

세째로, 어떤 調査問題에 대해 唯一하고도 完全한 調査設計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調査狀況, 調査者の 理論的인 觀點이나 世界觀(World-View), 方法論 等에 따라 最善의 調査設計라고 믿어지는 模型이 變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로, 調査設計는 調査에 關聯된 여러가지 實際的 要因들을 考慮한 하나의 妥協案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즉 비용, 시간, 조사자의 능력과 스타일, 자료의 活用可能性 등의 여러가지 要因을 複合的으로 考慮하여 決定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調査設計는 設計된 그대로 修正없이 施行해야 하는 高度의 具體的인 計劃이라기 보다는 보다 올바른 方向으로 研究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乍구어 말하면 調査設計에서 수립된 諸研究段階가 固着的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각己의 段階가 연계적으로 再投入되는 反復的인 過程을 거치면서

5) Russell L. Ackoff, *Scientific Method*, (N.Y.: Wiley, 1962), p.28. Ackoff의 等式은 다음과 같다.

$$V=f(X_i, Y_j)$$

여기서 V 는 調査者가 極大化하거나 極小化하려는 成就度이고, X_i 는 決定 또는 統制된 變數이며, Y_j 는 調査者가 統制하거나 統制할 수 없는 環境 等을 뜻한다.

調查의 質을 向上하게 되는 것이다.⁶⁾ 라마서 調查者는 狀況에 맞지 않는 假說을 排除하고 새로운 知識의 習得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假說을 開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事務室에서 만들어진 調查設計는 現地狀況을 考慮하여 修正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性格을 갖는 調查設計는 대체로 두가지의 基本目的, 즉 調查問題에 대한 正確한 解答을 提供하고, 이러한 解答을 얻는데 있어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分散이나 逸脫을 防止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이러한 調查設計의 目的은 보다 詳細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調査設計는 調査者가 調査問題에 대한 해답을 가능한 타당성있고 객관적으며, 정확하고 또 경제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考案된 것이다. 어떠한 調査設計라도 조사문제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리고 특별하게 考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調査問題는 假說形態로 記述될 수 있고, 또 실제 그렇게 기술하는 것이一般的이다. 즉 調査의 어떤 시점에서는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記述되는 것이다. 따라서 調査設計는 假說에 의하여 要約된 調査質問에 대해 信賴할 수 있고 또妥當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째로 調査設計는 變數와의 關係에 대한 적절한 檢證을 위하여 만들어진 일정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엇이 관찰되어야 하나,” “이것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관찰된 자료의 代表性 문제는 어떻게 分析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을 調査設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네째로, 엄밀하게 말하면 調査設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觀察 및 分析의 방향을 암시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調査設計의 적절한 암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觀察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무슨 變數가 操作의이며 또 測定된 것인가” 등과 같이 표현되는 것이다.

다섯째로 調査設計는 어떤 형태의 統計的 分析을 使用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여 준다.

끝으로 적절한 調査設計는 統計的 分析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한 結論의 운과를 제시해 준다.

6) Mayer and Greenwood, 前揭書, pp.73-76.

III. 調査研究의 正當性

調査研究의 正當化란 해당 調査研究가 왜 필요한가, 그 調査研究가 인류사회나 과학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 등을 밝히므로써 해당 調査研究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일을 말한다.

政策形成이라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政策研究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⁷⁾ 하나는 政策目標로서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 가를 연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調査目的이 政策形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어떤 행동이 政策目標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일을 다룬 것이 前者의 관심사항이라면, 어떠한 텁구나 조사가 調査目的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後者의 關心事項이다. 완전한 政策研究에 있어서 이 양면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 렇게 보았을 때 政策研究에 있어서 調査目的을 正當화한다는 것은 주어진 政策目標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 행동과정을 어떻게 용이하게 하여주는가를 說明 또는 記述하는 것이다.

이러한 調査目的의 正當화는 모든 政策問題가 필히 經驗的인 研究調查를 거치기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例를 들면 經驗的인 研究調查가 必要하기보다는 政策이 追求하는 目的이나 目標가 不明確하여 葛藤이 있는 問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價値觀이 明示될 수 있도록 選好的 또는 優先順位에 합의하여 導出함으로써 問題解決을 피할 수도 있고, 政治的인 協商이나 妥協을 통해 問題solution을 피할 수도 있다.

調査研究를 이런 식으로 正當화하는데에는 몇 가지 基準이 있다.⁸⁾

첫째는 政策家 또는 研究依賴者가 當面하고 있는 解決을 願하는 問題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政策立案者가 調査研究依賴者가 무슨 問題를 갖고 있는가를 確認하지 않고 研究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다 具體的인 例를 들면 「初生兒의 死亡率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政策行政인이 갖는 問題라면 初生兒 死亡率을 어떻게 하면 低下시킬 수 있는가를 밝혀내는 일

7) Mayer and Greenwood, 前揭書, pp.79-80.

問題解消에 관한 典型的 調査設計는 Ackoff의 上記著書를 參照할 것.

8) Mayer and Greenwood, 前揭書, pp.81-88.

이 調査研究의 目的이 되고 이를 調査研究의 正當化를 기술하는데 插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終局狀態(end-state)를 단순히 記述하는 것은 차라리 初步的인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死亡率을 낮추어야 하는가 즉 目標死亡變化量이나 어느 期間동안 어느 地域에서 死亡率을 어떻게 낮추는 政策行動을 取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전혀 言及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政策問題를 確認하고 詳細히 記述하는 것은 行動代案의 列舉와 選擇, 그리고 執行의 評價에 아주 긴요하다.

둘째는 위에서도 잠시 言及하였지만 政策目標執行을 위한 行動代案(Alternative Courses of action)을 確認하는 일이다. Ackoff(1953, 1962)가 주장하듯이 行動代案이 없는 한 調査研究는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行動代案의 存否問題는 重要[] 것이다며 이를 調査研究의 正當化에 包含시키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어서 주의할 일은 단순히 行動을 取하지 않는 것을 代案으로 擇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市民들은 政府나 公共組織이 뭔가 行動을 取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公共壓力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러한 行動代案을 作成記述하는 데에는 (1) 어떠한 行動이 가능한 것인가? (2) 어떠한 行動代案을 선택할 수 있는가? (3) 선택한 行動代案이 效果적일 수 있는가? 등을 考慮하여야 한다. 이 過程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代案의 範圍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세째로는 위의 두단계 즉 政策目標나 問題의 本質을 確認하고 이렇게 確認된 目標를 達成하거나 問題를 解決하는데 필요한 行動代案을 考案·選擇하는 過程에 있어서 使用된 有關情報 自體의 事實性 與否를 確認하는 일이다. 따라서 調査研究者는 이 段階에 있어서 (1) 情報의 事實性 與否를 確認하고, (2) 만약 事實 與否가 疑問視되는 경우에 어떤 것이 疑問인가를 명확히 記述하고, (3) 그러한 疑問이 어떠한 調査目標를 示唆하여 주는가를 明示하여야 한다.

이 段階에게 注意하여야 할 일은 事實性에 대한 疑問이 事實性에 관한 것이 아니라 政治的인 利害葛藤에 비롯된 것인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政治的인 또는 價值觀의 葛藤이 있는 경우에 調査研究를 第三者的인 입장에서의 公正한 判斷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느 것이 더욱 事實인가를 따지는 일은 그다지 效果的인 일이 못된다. Lindblom (1968, pp. 32ff.)이 적절히 지적한 것과 같이 利害나 價值의 葛藤이 있는 경우에는 黨派分析(partisan analysis)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黨派

分析⁴⁾. 其實 說得의 한 類型이고 調査研究에서 使用될 수 있다기 보다는 政治的妥協過程에서 使用되는 것이 더욱 妥當하다. 이때 價值選好와 政治行動者가 하는 行動目標를 正確하게 明示하여 주는 것이 繫要하다. 이때에 어느 것이 事實인가를 確認할 必要가 發生할 수 있으며 이러한 必要發生時에 한하여 調査研究가 手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調査研究者가 자신의 調査研究를 正當化하는데 있어 거쳐야 할 가장 힘든 段階은 調査依賴者가 調査研究의 結果를 活用하거나 그 結果에 기초하여 政策執行을 行할 用意나 信念이 있는가를 確認하는 일이다.

이 같은 두번째 段階에서 行한 行動代案의 考察·選擇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즉 代案의 範圍가 調査研究依賴者가 執行·實踐할 수 있는 範圍와 一致하여 한다는 것이다. 調査研究依賴者 또는 政策執行家가 執行·實踐할 수 있는 代案의 範圍는 環境的 變數一例를 들면 技術進步의 程度라든지 憲法에 明示된 法의 制約 등에 依한 制限을 받으므로 調査研究者는 代案作成과 政策家의 公約⁵⁾나 言質(Commitment)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環境的 與件을 고려하는 事이 必要하다.

이러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正當化의 過程에서 항상 留念해야 할 일은 調査研究依賴者와 調査研究者가 緊密한 關係를 유지하는 일이다. 또한 調査研究依賴者가 해당 公共組織에서 갖고 있는 權限과 位置를 調査研究者는 念頭에 두고 調査活動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調査研究가 보다 적절한 政策目標를 明瞭하게 形成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IV. 研究問題의 沿革的 考察

調査研究에 대한 正當性이 確保되면 正當化되는 過程에서 確認된 問題(또는 政策目標), 行動代案, 事實性에 關한 沿歷的 考察이 行해져야 한다. 이같은 沿歷的 考察은 이미 같은 目的을 가지고 行해졌던 研究에 對한 改善을 피할 뿐 아니라 或 同一한 研究調查를 反復하는 愚를 避할 수 있다는 點에서 必要하다.

이러한 沿革的 考察은 다음과 같은 內容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

첫째는 調査依賴者 또는 政策決定者가 達成하려는 問題나 政策目標에 관한 本質⁷⁾나 狀況의 變化나 傾向을 確認하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 또는 變化分析은 各種 統計資料를 利用하여 施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分析의 結果

9) Mayer and Greenwood, 前揭書, p.99.

는 過去의 政策을 評價하고 現在 施行하고 있는 政策의 重要性을 浮刻시키며 어떠한 세로운 政策介入이 必要한가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는 政策目標를 達成하는데 必要한 行動方案을 表現하는 模型들을 點檢해야 한다. 즉, 과거에는 어떠한 模型을 設計하여 어떠한 行動代案을 選擇하여 어떠한 目標를 選成했는가를 調査하는 일이 必要하다. 이러한 模型은 대개 大衆集團 또는 環境과 政策目標 間의 關係를 數學的으로 表現한다. 예를 들면 吸煙과 肺癌과의 關係를 밝히는 模型을 만들 수 있다면 비록 이 模型이 肺癌의 病因을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公共干渉이 必要한가 하는 端緒를 提供할 수 있다.

세째로는 위에서 點檢한 模型들의 適用可能性이나 效果性에 關한 資料를 萬集·評價하는 일이다. 위의 段階가 模型 그 자체에 關한 探索이라면, 本段階는 模型의 效果性에 關한 探索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模型의 效果性에 대한 探究는 現實的으로 힘든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模型의 效果性에 關한 研究 自體가 极히 적고, 模型을 現實에 適用시키는 데에 있어서 외의 要因을 統制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끝으로 歷史的 考察은 該當 考察이 調査設計에 대하여 어떠한 示唆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問題에 대한 歷史的 考察은 既存의 知識이 + 資料를 단순히 羅列式으로 記述하는데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調査 그 자체가 과거의 經驗脈絡 속에서 왜 필요하며, 어떠한 方法이나 政策分野에 어떠한 調査가 필요한가, 또는 既存에 축적된 知識이나 情報·資料 등을 새로 設計되는 調査에서는 어떻게 活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問題가 이 마지막 段階의 主要한 目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省察을 通해서 얻는 結果는 특히 研究調査가 왜 必要한가 하는 正當性의 問題와 어떠한 식으로 研究調査를 設計하여야 하느냐 하는 概念들을 形成하는 問題와 緊密한 關係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既存의 經驗에 關한 情報를 얻는데 있어 必要한 資料源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必要가 있다. 대체로 過去 經驗에 대한 情報源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¹⁰⁾

첫째는 行動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直接적인 경験이다. 이러한 被對象者の 直接적인 경験은 調査研究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資料源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면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이 이러한 차별을 없애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評價基準이 되기 때-

10) Mayer and Greenwood, 前揭書, p. 101.

문이다 다만 이러한 직접경험을 수집하여 얻은洞察은 그經驗들의一般性 여부를 두 해測定하고 증명할 수 있는命題(propositions)로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는現場에서 일하는現職者들의經驗과知識이沿革의記述의자료로쓰여질수있다. 왜냐하면현직자들은해당문제나정책을발전적으로생각하고있으며문제의발생기원이나정책이어떻게집행되는가,어떠한제약이있었는가를생생하게말해줄수있기때문이다. 또한被對象者的직접경험이때로제작된경험인반면현직자의경험은보다그범위가넓을수있기때문에이러한현직자의경험은가치가있는것이다.

끝으로보다넓은범위의경험뿐아니라시야를넓혀주는資料源으로文獻이있다. ①文獻을살펴는방법으로는(1)다루고자하는문제를집중적으로다룬特定論文이나報告書를閱讀한후,그논문이나보고서에있는脚註나參考文獻에나와있는文獻을一次的으로조사하거나,(2)가능하면다루고자하는문제에대한정보가담긴문헌이정리된文獻集을살펴보거나,(3)文獻集과유사한項目集(indexes),要約集(abstracts),定期刊行物(periodicals),또는統計資料集등을열람해보는것이다. 이러한文獻研究調查를할때,특히統計資料를비교검토할때유의해야할것은자료에실려있는定義나測定基準을조심하여살펴보아야한다. 그이유를測定對象에대한基準이나定義가시대에따라변화될수있는가능성때문이다.

이러한방법을통해文獻調查가되어해결하고자하는문제에대해基礎調查를할때에조사자가늘염두에두어야할일은수집하고있는자료의正確性(accuracy)과聯關性(relevancy)이다. 여기서정확성이란文獻이나一次資料에記述者나蒐集者의편견이나誤記가없어야한다는뜻이다. 특히면접을통해일차자료를수집할때이러한정확성을기하고자한다면面接項目에內的一貫性(internal consistency)을알아볼수있는장치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조사설계나있어서조사자의편견이나오류를범하지않으려면,조사하고자하는문제가제대로概念화가되어있는가,獨立變數나從屬變數에대한定義와그관계는정확히규정되었는가,資料를수집하고분석하는方法이나技術은타당한가등을살펴보아야한다. 이러한후에調査된諸資料가연구조사하고자하는문제에대하여어떤연관이있으며어떤시사를하여주고있는가등을검토해야한다. 이렇게하였을때沿革의記述을위한충분한文獻調查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을것이다.

V. 概念틀 만들기

調查研究의 必要性을 正當化하고 그에 대한 基礎文獻 및 資料調查가 끝난 後 調查目標를 實際的으로 形成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調查研究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概念틀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概念틀(conceptual framework)이란 調查研究하고자 생각한 것을 因果關係의으로 整理하여 보는 것이다.¹¹⁾ 따라서 概念틀을 만든다는 것은 주어진(政策)問題와 그의 解決이 어떻게 連結되는가를 가세한 模型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模型에는 過去에 행해진 研究나 經驗에서 얻어진 經驗的 資料와 問題解決을 위한 提案의 밑바닥에 깔린 價值體系가包含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概念的 틀은 調查研究에서 提案된 問題와 그 解決策, 또 이에 영향을 주는 外的 變數의 確認에서 사용되는 諸主要概念을 確認하고, 定義하며 仔細히 說明할 뿐 아니라, 이 概念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혀주는 精神的 構圖(mental map)이다.

따라서 調查研究者가 調查研究의 概念틀을 만들어 言語로 表現한다는 것은 ◦ 러한 研究의 精神的 構圖를 記述하고 說明하는 것을 뜻한다.

概念的 틀은 調查設計에 있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機能을 遂行한다고 볼 수 있다.¹²⁾

첫째는 調查研究의 結果가 調查依賴者나 政策形成家에게 바람직한 열매를 주기 위해서 考慮해야 할 變數가 무엇인가를 確認케 하여 준다. 즉 어떠한 變數가 問題와 그 解決에 가장 密接한 聯關을 갖고 있으며, 變數相互間의 關係는 어떻게 想定되었는가 등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는 이와 反對로 어떠한 變數나 그 變數間의 關係가 調查研究의 問題나 解決代案에 關聯이 없는가를 밝혀주므로 不必要한 資料分析을豫防한다. 즉, 研究의 限界와 範圍를 명확히 하여 주므로 어떠한 것들이 調査研究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았나를 밝히고 따라서 調査研究의 性格이나 特性을 드러나게 한다.

세째로는 調査資料分析의 結果가 어떠한 意味를 갖고 있는가를 밝혀주는 틀로서의 機能을 한다. 즉 研究調査에서 行하여진 資料analysis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알고자 할 때 그러한 意味性이 具現되는 준거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盲目的인 經驗主義의 水準을 뛰어 넘을 수가 있게 된다. 또한

1) 여기서 留意할 것은 社會現象에 있어서 嚴正한 意味의 因果關係는 調査될 수 없다는 立場이 있다는 것이다. 仔細한 것은 Ackoff의 *Scientific Method*를 참조할 것.

이러한 概念들은 調査結果의 一般化可能性(generalizability)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즉 調査研究의 결과 밝혀진 變數나 그 變數間의 關係가 다른 狀況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끝으로 概念들은 調査研究者가 調査目的을 演繹해낼 수 있는 前提(premises)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段階의 調査目標(research objectives)設定으로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附記할 것은 概念들과 유사한 理論들(theoretical framework)이나 理論의 根據(rationale)와는 差異가 있다는 것이다. 즉, 理論들은 흔히 科學的 探究의 내용을 記述할 때 쓰이며, 形式的 理論(formal theory)으로부터 演繹되거나 形式化를 통해 立證된 概念이나 變數間의 關係를 因果의으로 說明하는 것을 의미하며, 論理的 根據는 주어진(政策)問題에 대한 어떤 解決代案이 왜 그럴듯하게 그이는 가의 理由를 釋明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理論들은 比較的 抽象의이고 論理的 根據는 概念構造를 說明할 수 없으므로 이 兩者는 여기서 말하는 概念들보다 더 包括的이다.

이러한 特性과 機能을 가진 概念들은 그 構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行動代案과 政策目標間의 關係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因果分析의 用語를 빌리자면 從屬變數의 變化를 獨立變數의 變化가 어떻게 說明하는가, 즉 그 變化間의 關係를 나혀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概念들을 만들 때는 單純히 二元變數分析(bivariate analysis)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多變數間의 關係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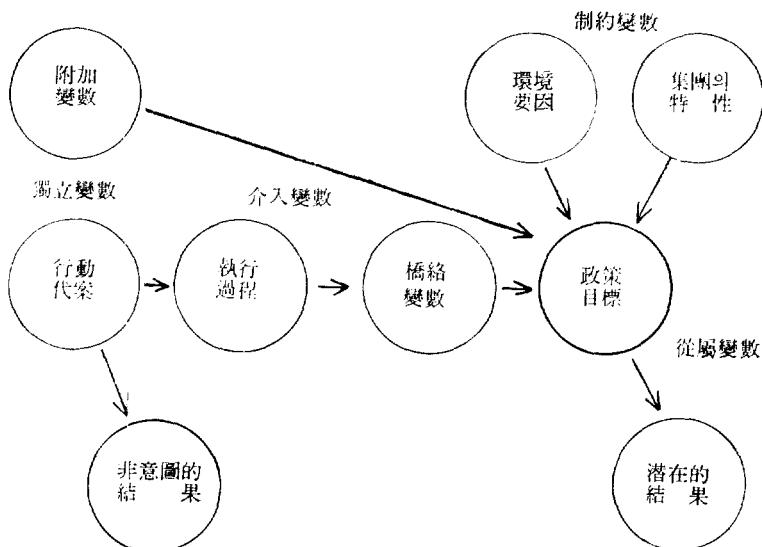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概念들에서 고려되어야 할 變數는 그 種類가 多樣하다.¹³⁾

우선 介入變數(intervening variable)는 獨立變數와 從屬變數 사이에 들어서서 獨立變數의 영향을 받으면서 從屬變수에 영향을 주는 變數를 뜻한다. 이러한 介入變數에는 執行過程에서 일어날 수 있는 執行變數(implementation variable)와 橋絡變數(bridge variable)의 두 가지 類型이 있을 수 있다. 執行變數의 對象으로는 政策이나 政策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사용되는 行政戰略을 들 수 있으며 이와 한 戰略은 프로그램의 內容과는 區別된다. 반면에 橋絡變數는 일종의 中間結果로서 政策目標의 達成에 先行하여 介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職業訓練프로그램을 獨立變數, 訓練을 받은 者의 就業을 從屬變數로 본다면 被訓練者의 就業을 可能케 하는 습득된 技術을 橋絡變數로 볼 수 있는

12) Mayer and Greenwood, 前揭書, pp.122-123.

13) Mayer and Greenwood, 前揭書, pp.124-131.

〈表〉 政策問題의 概念적 構造(Mayer and Greenwood, 1980, p.126)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技術習得과 就業에 必要한 諸措置나 行政支援은 執行變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생각하여 볼 수 있는 變數로는 統制變數(control variable)를 들 수가 있나. 統制變數는 從屬變數에 있어서의 變因을 달리 說明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競爭假說(rival hypothesis)을 제공한다는 點에서 統制變數의 영향은 評價時 統制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한 統制變數에는 附加變數(adjunct variable)와 制約變數(constraint variable)의 두가지 類型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附加變數란 採擇된 政策이나 프로그램의 效果性을 높이기 위해 政策形成家가 附加的 또는 追加하여 取하는 行動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補充的 政策 또 三 프로그램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附加變數는 行動代案과는 별도로 取하는 行동이므로 行動代案의 일종은 아니다. 또한 附加變數는 獨立變數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介入變數와 混同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附加變數는 政策 그 자체의 영향을 확인할 때에는 常數와 같이 一定한 것으로 統制되어야 한다.

반면 統制變數는 政策 또는 意思決定者가 統制할 수 있는 要因으로서 政策過程에 영향을 주는 變數를 뜻한다. 統制變數 역시 두가지 類型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環境要因(environmental factors)이고 다른 하나는 對象集團의 特性

이다. 環境要因은 政策問題의 脈絡 속에서 政策決定者의 操作 또는 統制能力의範圍을 벗어난 對象集團의 社會的 또는 物理的 環境의 諸要因을 말하며 그 종은 依로서는 經濟發展의 速度나 氣候에 따른 畏害 등을 들 수 있다. 對象集團의 特性은 政策이 實行되는 期間동안 比較的 變하지 않는 對象集團이 지니고 있는 諸特性으로서, 例를 들면 年齡이라든가 教育程度 등이다.

制約變數는 政策決定者가 操作・統制할 수 없다는 점에서 附加變數와 다르다. 나아서 어느 變數나 要因이 政策決定者가 操作・統制할 수 있는가를 認知하는 것은 政策의 效果性 增進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變數가 操作・統制할 수 있는가는 政策問題가 갖는 脈絡이나 狀況의 相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끝으로 고려해야 할 變數는 所謂 副作用(side effect)이다. 이러한 變數는 政策行為과 政策目標間의 因果的 연결고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結果로서 非意圖的(unintended)인 것과 潛在的(latent)인 것의 두 가지 類型이 있을 수 있다. 만약 副作用이 어떤 行動代案이 취해진 결과로 발생할 때 그러한 副作用은 非意圖의 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副作用이 政策目標가 달성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政策의 潜在의인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前者の 例로서는 個人의所得稅를 減免함으로써 財貨와 用役의 需要去를 增大시켜 雇傭擴大를 帶하는 것이 政策目標라면 이 一連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는 非意圖의 結果이다. 後者の 例로서는 政府에서 一家口一住宅을 實현하기 위한 한 方針으로抵當斗를 내린 경우 新築이 特定地域에서만 增加하여 都市居住民間의 隔差만 크게 만들었다면 이러한 隔差는 潛在의 結果가 되는 것이다.

이 4한 諸變數들을 充分히 考慮하는 過程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 變數들의 正確한 概念은 무엇인가, 即 概念의 明確化가 뒤따라야 한다. 이때, 指摘되어야 할 것은 概念間에는 抽象化의 程度에 따라 一般概念(global concepts)과 下位概念(sub-concepts) 또는 變數와 그에 더욱 下位의인 標識的 測定(尺)이 階層의 2로 構成되어 있다는 것이며, 抽象化의 程度가 높을수록 比較的 複雜한 現象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下位概念이나 變數는 特性이나 次元의인 問題들을 다루게 되고 測定(尺)은 實際의 準據對象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概念이 더욱 具體化되고 明瞭化가 될수록 準據對象을 直接的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며 概念의 操作化가 容易해진다.

이 4한 점들을 고려하여 概念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만드다.

첫 단계는 앞서서 正當化段階나 沿革的 考察段階에서 등장하였던 諸變數를 점

着手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비록 正當化段階에서 調査目標가 公式的으로 陳述되지는 않았지만 最小限 調査目標의 基礎를 形成하는 條件은 밝힐 必要가 있다. 또한 政策形成家와 研究者간에 討議事項으로 대두된 各種行動代案을 列舉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대체적인 獨立變數와 從屬變數가 確認되면 다른 變數의 存在與否를 沿革의 考察段階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이때에 執行變數나 附加變數 등의 위에서 說明한 여러 變數의 聯關性과 영향력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비록 部分的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聯關性이 있다고 判斷된 여러 變數에서 드러난 諸概念을 明瞭히 定義하거나 說明하는 것이다. 특히 무엇이 獨立變數이고 무엇이 從屬變數인가를 明確히 해두는 것이 이 過程에서 必要하다. 이러한 變數의 區別과 概念의 明確化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調査研究의 焦點이 흐려질 뿐 아니라, 무엇을 研究하는지 모르게 된다. 그러나 이 段階에서 概念을 完全히 操作化하여 測定(尺)까지 밝힐 必要는 없다.

세째는 이런 段階를 밟다보면 누락된 變數가 여전히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이 때에 探索的 研究(exploratory study)가 始作되는 것이다. 이러한 諸行爲는 모두 概念的 틀을 明確하고 完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때 使用되는 方法으로는 論理와 推測을 이용한 演繹的 方法이다. 즉 獨立變數로 始作하여 이 獨立變數를 우선 操作化한 다음, 行動代案과 必要한 先行條件들을 確認하고 採擇된 政策으로부터 發生할지 모르는 各種 結果를 分析한다. 이때에 非意圖的 結果이면서 政策目標達成에 必須의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를 檢討한다. 이러한 演繹過程은 從屬變數로부터 時間上 거꾸로 해 나갈 수도 있다. 獨立變數로부터 演繹해 나가는 方法이 原因과 結果를 연결시켜 보는 것이라면 從屬變數로부터 演繹해 나가는 方法은 結果를 原因에 연결시켜 推論하여 보는 것이다. 이러한 推論이 일단 마무리가 되면 目標達成을 가로막는 또는 용이하게 하는 要因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본다. 이 要因들을 確認하는 過程에서 確率理論을 使用하여 沮害 또는 促進의 強度를 推測하여 볼 수가 있다.

마음 네번째 段階로는 (概念틀에 有關한 變數들을 確認하였으므로) 이 變數들이 概念틀 안에서 어디에 位置해야 하는가를 決定해야 한다. 이 경우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諸變數나 概念들은 어느 程度 操作化 段階까지 具體化됨으로써 概念틀에서 使用되는 諸變數나 概念이 明確해져 있어야 한다. 變數의 位置를 定하는 것은 이러한 具體的 明瞭化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變數의 位置를 定하는 것은 諸變數間의 連結關係를 보다 具體的으로 確實히 해주는 것을 뜻한다. 물론 變數의 位置를 定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따라서 變數의 位置

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하고자 다음과 같은 位置基準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因果關係의 連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變數의 統制・操作可能性을 진단하고, 意思決定者의 優先順位를 확인하며, 끝으로 意思決定者의 意圖를 點檢하는 것이다. 여기서 因果關係의 連結은 獨立變數와 從屬變數를 確認하기 위한 것이고, 變數의 統制・操作可能性은 어느 것이 執行變數이고 어느 것이 橋絡變數인가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한편 優先順位의 決定은 獨立變數와 附加變數를 區分하기 위한 것이고, 意圖를 確認하는 까닭은 非意圖的 結果와 潛在的 結果를 分離・確認하고자 함이다. 非意圖的 結果는 또한 因果連結고리에 의해서도 確認될 수 있다. 따라서 因果連鎖고리에서 獨立變數 다음에 位置하지만 政策形成家의 意圖와 無關할 때에는 非意圖的 結果가 되고, 從屬變數 다음에 位置하지만 政策形成家의 意圖와 無關할 때는 潛在的 結果로 看做되는 것이다.

이러한 式으로 位置가 確定되면 全體的인 構圖의 正確性, 一貫性, 妥當性을 마지막으로 點檢해보아야 한다.

끝으로 概念들을 만드는 過程에서 留意해야 할 것은 概念들의 윤곽적인 한계는 면 原則이 있어 그 原則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程度 慎意的 이라는 것이며. 예를 들어 獨立變數 그 自體에 영향을 주는 先行變數가 存在할 수 있으며 이 先行變數를 단순히 外生變數(exogenous variable)로 取扱하느냐 하는 것은 慎意的 判断에 起因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留意할 것은 變數의 概念틀안에서의 位置는 可變的이라는 것이다. 즉 研究調查의 焦點이 變化함에 따라 變數의 位置가 變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行動의 優先順位가 바뀌면 附加變數가 獨立變數가 되고 獨立變數가 附加變數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表에서 보여진 것 같이 한 變數가 다른 한 變數로 連結되는 것과 같은 模型은 實現의 이라기 보다는 理想型이라는 것이다. 實際 狀況에서는 한 變數가 여러 變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여러 變數가 한 變數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어느 變數와 다른 變數의 關係가 弱하다면 概念틀에서 때로 無視될 수 있을 것이며 앞의 表는 보다 簡略化될 수도 있을 것이다.

VI. 調查目標의 陳述

研究調查의 必要性이 正當化되고 調查와 有關한 既存資料나 文獻을 살펴어

研究調查할 概念들이 어느 程度 잡히면, 具體的이고 限定的인 調查目標의 陳述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調查目標가 概念들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調查目標는 다음 段階에서 行해질 資料蒐集과 分析에 드는 費用, 時間, 資源 등의 制約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調查依賴者나 政策形成家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效果的인 變數의 性格이나 關係에 限定짓는 것이 妥當하다. 즉 調查目標는 問題를 解決하는데 izzo한 特定 變數들의 性格, 分布 또는 相互關係에 대한 事實探查의 方向을 陳述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前節에서 살핀 많은 變數의 種類 中에서 어느 變數와 어느 變數를 限定하여 어떤 樣相을 特定的으로 調査할 것인가는 어떤 特定 變數를 調査分析 對象에 포함시켜 얻는 利益과 費用間의 比較에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調査目標의 陳述이 이 段階에서 確定的으로 매듭지어 지는 것은 아니라 三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調査設計의 各段階가 相互間に 영향을 주어 修正의 可能性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段階에서 하게 되는 調査目標는 暫定적인 것으로 기초적인 陳述(working statement)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妥當한 것이다.

調査目標의 陳述은 앞으로 있을 母集團의 選定, 標本抽出, 資料蒐集, 蒐集된 資料의 分析 等의 보다 具體的이고 經驗的인 段階와, 앞서의 보다 抽象的이고 觀念的인 段階들 間의 中間位置에 서서 具體的이고 經驗的인 段階의 方向을 決定하므로 어떻게 陳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調査目標의 陳述에 し 調査方法이 探索的인가, 記述의인가, 또는 說明의인지를 가름하여 볼 수 있으므로 올바르고 정확하게 陳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調査方法은 앞서 서 示唆한 바와 같이 問題解決에 繫要한 變數에 대한 知識 程度에 달려 있다. 따라서 調査目標의 陳述이 어떤 形態를 取할 것인가도 이러한 知識水準과 有關하다.

調査目標의 陳述形態는 대개 開放質問型(open-ended question), 閉鎖質問型(closed-ended question), 因果假設型(causal hypothesis)으로 나눌 수 있다.¹⁴⁾

開放質問型은 (政策)問題에 대한 知識程度가 낮아서 變數의 特性을 알고자 할 때 종종 이용된다. 즉 現象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特性에 대한

14) 이것은 Mayer와 Greenwood의 分類方法을 따른 것이다. (Mayer and Greenwood, 前揭書, pp.158-165.) 그러나, 다른 觀點에서 調査形態에 따라 survey調查設計, 實驗設計, 事例研究調查設計, 內容分析設計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Survey調查設計에서는 調査를 위해 확보되는 對象者の 數, 이들이 選定되는 母集團에서의 對象의 典型性, 수집된 자료의 信賴度, 곧 外의 妥當度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實驗設計에서는 單位選定과 分類가 重要하다.

質問은 限定的이고 具體的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開放設問型은 어떤 개념의 착상(idea)이나 用語는 알려져 있으나, 被指示物(referents)이 不分明한 경우에 그 개념이 무엇인가 分明하게 밝히는 데에 쓰인다. 그러나 開放質問型은 항상 어떤 概念의 構成變數를 確認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開放質問型은 概念들에서 주요한 变数의 先行 또는 後續狀況이나 條件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開放質問型의 예를 들면 “交通難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政策이 취해져야 합니까?”(개념의 구성변수를 확인할 경우.) “失業者가 就業하는 것을 防害하는 要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先行·後續要因을 확인하는 경우) 등이다.

反面에 閉鎖質問型은 政策問題를 구성하는 주요한 特性이나 变数는 調查者가 잘 알고 있지만 그 크기나 범도를 묘사할 때에 주로 쓰인다. 즉 特定한 特性이 주어질 每集團에서 階級別, 範疇別, 또는 價值別로 어떻게 分布되어 있는가 혹은 그 特性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現象의 特性을 限定지을 때도 사용된다. 예를 들면, 年齡, 性, 教育等은 이미 알 수 있는 區分階級에 의해 量化됨으로 具體的 記述이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閉鎖質問型은 때로 特定 變數에 限定해서 行해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失業者는 모두 몇 명인가?” 하는 式으로 作成할 수 있다. 몇 가지의 變數를 同時에 다루는 경우에는 “年齡別, 性別, 教育水準別 失業人口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式으로 진술할 수가 있다.

끝으로 因果假設型은 調査分析者가 어떤 現象의 特性뿐 아니라 그 特性的 크기가 分布를 알고 있지만 다른 現象과 연계하여 그 크기가 分布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어떠한 한 變數에 의한 變量을 다른 한 變數에 의한 變量으로써 說明하고자 할 때 因果假說型이 使用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變量間의 分析은 單純한 記述로는 그 要求를 充足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因果假說型의 研究調查目標은 “產母의 生活水準에 變化가 없다면 新生兒死亡率의 低下는 產母가 新生兒保護機關을 利用하는 回數와 관련이 있다.”는 式으로 만들어 질 수가 있다. 만약 순수한 실험과 같은 調査設計를 할 수 있다면, “모든 條件이 同一하다면”과 같은 前提條件을 使用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調査研究하려는 즉 調査研究의 對象이 되는 內容을 質問이나 假說形態로 表現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方法論的 示唆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方法論的 示唆는 보다 具體的인 調査方法이나 技術까지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調査目標의 記述은 調査研究의 對象集團, 그 集團의 特性를 確認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區으로 부터의 標本抽出, 資料蒐集, 募集된 資料의 分析 等을 決定하는 일에 대개 어떠한 方法을 使用해야 하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面을 調査目標의 陳述形態에 따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開放質問型에 의해 진술된 調査研究의 目標는 대개 深究的 方法(exploratory method)을前提한다. 왜냐하면開放設問型의 目標는 變數나母集團의 特性을 밝히거나 確認하는 것이 目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開放設問型 調査目標의 效果的인 達成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對象集團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事例도 目的을 가지고 意圖的으로 抽出되는 것이 좋다. 이러한 方法에 의해 產生된 調査結果는 대개 質的인 것이며 確認된 特性이나 變數의 類型이나 部類의 範圍등에 關해 推定하게 된다.

反面 閉鎖質問型에 의한 調査目標는 대체로 記述的 方法(descriptive method)을 使用하게 된다. 研究對象集團의 크기가 크다면 標本抽出도 無作爲抽出에 의해 하게되며 觀察도 探索的 方法보다는 더 標準化되고 嚴正하여야 한다. 따라서 調査에서 產生되는 結果도 이미 定立된 類型, 部類 또는 範疇에 따른 列舉나 度數分布, 比分布, 平均, 比率 등의 形態로 나타나거나 때로는 組合關係의 係數로 나타난다. 즉 量的인 情報가 얻어지게되는 것이다.

그으로 因果假說型의 調査目標는 대개 說明的 方法을 採擇하게 된다. 왜냐하면 因果假說型의 目標는 根本的으로 因果假說에서 규정된 條件을 證明하려는 因果關係를 檢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說明的 方法은 적어도 假定된 原因에 대해 다른 두 事例와 아울러 共通的으로 變化하는 다른 한 原因變數(causal variable)가 存在할 때에만 可能하며, 觀察은 더욱 嚴正하고 體系의이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한 方法은 假定된 因果關係가 比較的 受容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結論을 도출한다. 이러한 結果가 나왔을 때 調査者는 觀察의 事例와 統制된 變數間에 因果關係가 成立될 수 있는가를 推定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事例의 範圍나 對象集團의 크기 또는 標本抽出 및 分析法은 앞서의 記述的 方法에서 행해진 것 以上이어야 하며, 研究對象集團의 크기가 클수록, 또한 統制된 變數가 많을수록 因果分析結果의 一般化 可能性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으로 유의할 점은 調査目標가 둘 以上일 때에는 使用하게 되는 方法도 多樣히질 수 있으며 對象集團이 이러한 多樣한 目標와 方法을 使用할 수 있을 程度로 큰가에 따라 制約을 받는다. 물론 調査設計 自體로 複雜하게 된다.